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의 背景과 目的

우리나라 保險産業은 보험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자유화, OECD에의 가입 확정, 금융산업의 개편 및 금융개혁의 추진 등으로 규제완화와 함께 無限競爭時代에 진입하고 있다. 市場競爭은 물론 보험기업의 파산을 지금까지 거의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격변기의 보험환경하에서 피할 수 없는 適者生存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개방과 국제화는 WTO체제의 출범과 OECD에의 가입 확정 및 1997년의 금융시장 단계별 개방일정의 완료, 특히 보험계약자와 국내보험시장의 보호육성을 위해 적용되던 經濟的需要審査(economic needs test: ENT)制度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개방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그 폭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그동안 協定料率制度의 은실 안에서 시장 경쟁 자체가 배제되었으나, 1994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價格自由化가 시행되고 있다. 불확실한 장래의 사건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라는 약속에 대한 對價로서 事前에 산정되는 보험료의 특성상, 가격자유화는 무리한 가격인하경쟁과 부실경영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기업의 파산위험은 증대될 것이다.

보험상품의 자유화 및 금리자유화는 確定利子保障商品과 같은 경쟁적인 利子感應商品(interest-sensitive product)의 개발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금리변동위험과 투자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다.

保障性商品보다도 貯蓄性商品에 치중되어 있으며, 특히 연금보험이 주력상품으로 대두되고, 새로운 각종 투자감응상품을 개발판매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게는 投資危險과 經營不實危險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금년 초 대통령직속의 金融改革委員會가 구성됨으로써 금융개혁과 금융산업개편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벌써부터 금리인하, 종업원퇴직보험의 은행권 참여 등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철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金融機關의 引受·合併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금융개혁의 와중에서 보험산업은 연금보험시장과 더불어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어 경영부실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保險規制緩和과 價格自由化는 소비자의 이익보호가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격심한 경쟁과 보험기업의 파산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다수의 일반대중, 특히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으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무한경쟁시대의 보험정책의 기본목표는 보험회사의 파산의 예방과 支拂能力의 確保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규제완화와 여러 부문에서 자유화가 진전되고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체제에 익숙한 미국 보험기업의 파산과 경영부실화를 중심으로 損·生保別 破産 現況과 原因 및 實際事例들을 분석하고, 지급능력의 확보를 위한 미국의 규제감독제도 및 보험회사의 파산 증가에 따른 미국의 全國保險監督官協會(NAIC)와 미국 州政府의 보험정책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 소개되는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사례와 그 대응방안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우리 정부의 政策立案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데 본 研究의 目的이 있다. 참고자료로서 충실을 기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경영부

실과 파산 방지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지급능력 규제제도를 검토해 보고, 지급능력의 확보와 제고를 위한 보험정책방향과 몇 가지 改善方案에 관한 필자의 私見을 첨언하고자 한다.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보험기업의 파산과 지급능력의 문제는 財務健全성과 安定性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요율의 산정, 보험모집, 재산운용, 손해사정 및 내부통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경영의 효율화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研究의 範圍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국한하였다.

支給能力의 規制에 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美國 뿐만 아니라 英國 등 유럽제국이나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하게 발전되어온 日本의 규제제도와 규제정책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美國의 事例에 한정하였다. 규제완화와 자유화의 속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으로서도 미국의 지급능력 규제제도의 검토 및 그 도입이 모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관한 본 연구보고서가 정책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능한 한 기초자료를 망라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理論的 接近方法보다는 미국에서 발간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사례와 자료들을 종합하는 文獻的 研究에 치중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에 대한 美聯邦議會의 관심고조와 이에 대처하는 NAIC의 대응노력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내에서 많은 자료들이 출간되어 본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미국 손·생보사별 보험회사의 파산에

관한 A.M. Best회사의 1991년과 1992년 및 1995년 특별연구보고서,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美議會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의 각종 보고서 및 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와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서, 미국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의 규제에 관한 NAIC와 OECD 및 기타 많은 문헌들이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책참고자료로서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료들을 망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자료수집의 한계 및 수집된 자료의 소화와 번역 및 종합화하는 필자 개인의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 연구보고서의 완결성이 얼마만큼 충족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第1章에서는 研究의 目的과 範圍 및 方法을 기술하였다.

第2章에서는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급능력의 규제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美國 保險産業의 構造와 變遷過程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미국 보험시장의 개황과 보험회사의 신설·폐업추이 및 損·生保別 市場構造를 살펴보았다.

第3章에서는 과거 20여년 동안의 미국 보험기업의 파산 현황과 파산회사의 특성 및 그 원인을 損·生保別로 分析하였다.

第4章에서는 파산한 미국의 주요 기업의 사례와 그 원인 및 규제당국의 문제점 등을 역시 損·生保別로 제시하였다.

第5章에서는 미국 보험기업의 支拂能力 확보를 위한 NAIC(全國州保險長官會議)와 州政府의 保險規制方案 등 보험기업의 파산에 따른 보험정책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급능력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保險規制와 監督制度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지급능력의 監視監督制度, 破

産會社의 清算制度, 保險保證基金制度, 危險基準資本金制度(RBC)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第6章에서는 지급능력의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 保險業法上 規定과 손·생보별 지급능력의 규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 保險環境의 變化를 개괄하고 미국 보험기업의 파산과 대응방안이 우리나라에 주는 敎訓 및 示唆點과 함께 지급능력의 제고를 위한 政策方向과 몇가지 改善方案에 관한 필자의 私見을 제시하였다.

第7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오늘의 보험환경하에서 지급능력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한 規制政策의 重要性和 時急性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었다.